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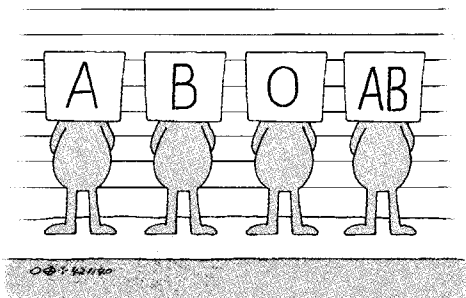


피는 못 속인다고? 혈액형에 얽힌 진실 혹은 편견!

요즘 '혈액형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반갑지 않다. 혈액형을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입력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한창 못매를 맞고 있는 B형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요즘 때 아닌 피바람이 불고 있으니, 혈액형 신드롬이 그것.

혈액형이 노래, 영화, 책 등 문화예술계를 휩쓸고 있고, 혈액형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혈액형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과연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계는 믿을 만한 것일까?

글 · 이원희(자유기고가) / 일러스트 · 공보혁



세상에 존재하는 4가지 인간형

혈액형 신드롬 | 최근 우리 사회에는 딱 4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O형 인간, A형 인간, B형 인간, 그리고 AB형 인간. 요즘 혈액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코드가 됐다. 별자리 운세, 띠별 운세와 함께 여성지 맨 뒷장을 장식하던 혈액형별 성격 분류가 가수 김현정의 'B형 남자'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혈액형에 따른 성격과 기질, 사랑법, 공부법, 직업 등을 앞 다투어 소개하고, 서점가에는 '혈액형을 알면 아이의 재능 100% 살린다', '혈액형 120% 활용학', '혈액형 사랑학', 'B형 남자와 연애하기', '내 혈액형에 꼭 맞는 즐거운 다이어트' 등 다양한 혈액형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예인은 B형이 많다', 'CEO들 중에는 B형이 많다' 등의 특정 직업과 연관시킨 무분별한 통계학적 결과도 혈액형 열풍을 한몫 거두고 있다.

혈액형별 속옷, 차, 다이어트 등 각종 비

즈니스도 혈액형 바람을 탔다. 또 인재선발에 있어 혈액형을 중요한 정보로 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혈액형에 따라 아이들을 분류해 교육하는 유치원도 생겼다. 이쯤 되면 혈액형은 과거 심심풀이 성격 테스트 차원을 넘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혈액형 신드롬은 '혈액형과 성격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는 혈액형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별자리나 십이간지 운세와 달리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혈액형=성격 아닌 근거들 | 정말 혈액형과 사람의 성격은 상관이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학자나 과학자, 나아가 심리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혈액형이란 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의 유

무 또는 조합으로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일 뿐이다

사람에게 고유한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1900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병리학자 칼 란트슈타이너(Karl Landsteiner)이다 그는 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의 혈액형이 A, B, AB, O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써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BO식 혈액형은 9번 염색체의 ABO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의 피 속의 적혈구에 부착된 항원(A항원, B항원)의 종류에 의해 나뉜다 적혈구에 A항원만 있으면 A형, B항원만 있으면 B형, 둘 다 존재하면 AB형, 둘 다 없으면 O형이다.

또한 피 속에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데 A형인 사람은 항B항체를, B형은 항A항체, O형은 항A항체와 항B항체 모두를 가지며, AB형은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혈액형을 수혈 받을 경우 응혈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ABO식 혈액형의 발견은 수혈법을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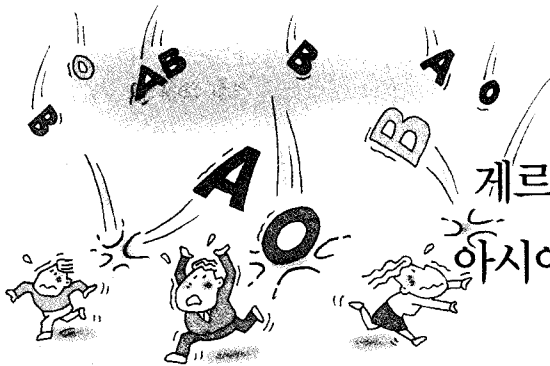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우리는 ABO식 혈액형만 알고 있지만, 그밖에 M이나 N항원의 유무에 따른 MN식 혈액형, Rh 인자의 유무에 따른 Rh식 혈액형 등 현재까지 밝혀진 혈액형의 종류만도 600여 가지나 된다. 유독 ABO식 혈액형에만 국한되어 있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이 여기에 있다 수백 가지나 되는 다양한 혈액형 중에서 유독 ABO식 혈액형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

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국가별 혈액형 분포를 살펴봐도 그 허점이 드러난다. 나비호 인디언은 O형과 A형만 있으며, 분포 비율이 각각 72%, 26%다 또 페루 인디언은 100%가, 마야인은 98%가 O형이다 그렇다면 이들 O형은 모두 같은 성격과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페루 인디언과 마야인은 모두 같은 성격일까? 또 같은 A형이라 할지라도 AA형과 AO형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A형의 기질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 더 커 | 혹자는 혈액형 속에 성격을 규정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설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아직까지 성격은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인간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혈액형에 따른 성격 연구가 마지막으로 기말 곳은 통계학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앞서 '연예인 중에는 B형이 많다', CEO들 중에는 B형이 많다'와 같은 설문조사나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학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또 통계학적 결과가 사실이며 옳다고 해서 그것을 개개인에게 적용, 혹은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예인 중에 B형이 많다고 해 통계는 조사대상이나 조사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B형이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게르만인은 우수하고
아시아인은 미개하다?

혈액형 인간학 | 혈액형과 성격과의 상관관계는 태생적으로 비과학적인 접근에서 출발했다. 그 기원은 세계 제2차 대전 이전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은 '게르만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우생학 연구가 활발했다. 이때 민족마다 혈액형의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혈액형을 연구대상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하이델베르크대의 에밀 폰 뉘게른 박사는 혈액형에 따라 인종의 우열이 나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형이 많은 게르만족은 우수하고, B형이 많은 아시아인은 미개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생학 자체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인 만큼 혈액형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유아 무야 됐다.

그런데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던 한 일본인 의사가 이 혈액형에 대한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왔고, 1927년 심리학자 후루카

와가 이를 토대로 319명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액형으로 기질이나 성격(민족을 기질로 바꿨다)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혈액형과 기질과의 상관관계가 일본사회에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 저널리스트였던 노미 마사히코가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책을 내면서부터다.

우리나라에도 혈액형 인간학의 대부 노미 마사히코와 노미 도시타카 부자의 책과 이론이 들어오면서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고조되어 오다가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은 우수하고 아시아인은 열등하다'는 연구에서 비롯된 혈액형 연구가 되레 아시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무척 아이러니하다.

혈액형에 숨겨진 자기암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인간학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는 것은 '정말 꼭 맞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혈액형끼리 실제로 공통된 성격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바넘효과(혹은 포러 효과)'로 설명한다. 바넘효과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은 그 특징이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때때로 외향적이고, 정적이고, 사교적이다'와 같은 것이다 혈액형 성격학 역시 그런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나 다른 혈액형에 대한 진술을 살펴 보면 그 역시 자신의 성격과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자기충족예언 혹은 암시로도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혈액형에 해당되는 진술을 보고 인지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진술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B형은 독립심이 강하다'는 진술을 봤을 때,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스스로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마침내 스스로도 독립심이 강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O형이라고 하면 O형의 틀에 맞춰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혈액형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에 따라 규정해 놓은 성격이 반대로 사람을 규정하는 격이 된다. 즉 편견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

본의 심리학자 오무라 마사오 교수는 이를 'FBI 효과'로 부른다 '성격은 원래 규격화할 수 없지만(Free-size), 한번 이름 붙여지고 나면(Branded), 마음에 새겨진다(imprinted)'는 것이다

학연, 지연에 이은 또다른 편견 |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매체를 통해 인간관계가 보다 즉흥적이고, 관계맺음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사람들은 빨리 상대방을 파악하고 싶어한다. 최근의 혈액형 신드롬은 인간 유형을 딱 4가지로 나눠 도식화한 혈액형 인간학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욕구와 딱 맞아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신드롬을 한때의 유행으로만 여겨도 좋을까? 각박한 세상에 같은 혈액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할 수 있다는 이 가벼운 동질감이 긍정적이기만 할까? 자신과 혈액형이 다르고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혈액형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혈액형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줬던 사람의 혈액형과 같다는 이유로 속단해서 상대방을 해석하지는 않을까? 학연, 지연, 또는 골이 깊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지역감정처럼 말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혈액형 인간학이 상업적 목적과 결탁해 혈액형이 공부, 연애, 결혼, 직업 등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게끔 과대광고하고 최면을 거는 세태가 아닐까 싶다 卍